

## 마가복음의 예수님(38) -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인(막 8:27-38)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다. 이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우상의 땅, 불신의 땅, 최악의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신 것이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나타낸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확신에 찬 신앙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 1.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 보셨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이는 없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란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다. 이어서 예수님은 “고난받은 메시아”를 말씀하셨다(31절).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기록한다.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공개적으로 강조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 2.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되어 나온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죽음 당하지 않고, 위대한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절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육체적이고, 기복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도 행복도 번영도 누릴 수 없다. 그러기에 외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생각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 3.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34절)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교훈하신 예수님은 끝으로 십자가를 주제로 말씀하신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1)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2)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한다.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든 편하게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안일한 사람이 가는 천국과 고난을 각오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3)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역설적이다(35절).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설적인 축복이 있다.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이 담대히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38) -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인(막 8:27-38)

1. 마음 열기 -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방법은?

2. 경배와 찬양 - 449장,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삼은 - 모든것 내려놓고 - 내 주 되신 주앞에 나가 -

내가 사랑 했던 - 모든것 내려놓고 - 주 님만 사랑해 - 내가

- 주사 랑 거친 풍랑 에도 - 깊은 바다처럼 - 나를잠잠케해 -

주사 랑 내영 혼의반석 - 그 사랑 위에 - 서 리 -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야기 해 봅시다.
- (3) 기독교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 (1)고난이 필수라는 것, (2)안일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질 준비를 해야 하고, (3)목숨을 잃어야 구원을 얻는 역설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4. 사역 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 (3) "몽골단기선교", "미래사역국 & 청년부 여름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